

MK BLOSSOMER

김영철 양선나 MK 교육선교사



인천공항



알마티 공항



도착한 다음날 함박눈과 함께

MK 선교사로 제 2장을 펼치는 마음 ...

이번 안식년을 통해서 배운 점들 중 하나는 선교란 일보다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MK 사역은 선교사 자녀와 그 가정과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고 돕는 사역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준에서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MK 와 MK 가정을 섬긴다는 자세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역을 일로서 생각하고 인정받는 것보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목적지는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선교사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가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쓰며 오직 성령의 9가지의 열매만을 맺기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매일 매일 고백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MK 와 MK의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곧 저희의 선교적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출국

3월 31일 (수요일)에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짐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씩씩하게 손을 흔들면서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 뒤에서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주님께서 저희 앞에서 먼저 가셔서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기대 때문입니다.

몇주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짐을 잘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와서 짐을 풀어보니, 이것도 저것도 빠진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작은 것 하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한 저희를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저희를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텐션학교 상황

지난 월요일에 MK 학교인 텐션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학교 웹사이트의 사진에서 본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 모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각 반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텐션 학교의 한국 학생은 현재 49%라고 합니다.

현재 학교는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해서 교사들은 더 할일이 많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중에는 코로나를 이미 겪었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쳐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텐션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의 코로나 상황

이곳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코로나 대응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마스크 안쓰신분이 더 많고, 쓰신분들은 모두 얇은 덴탈마스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텍스크가 대부분이십니다. 매일 2,700여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현재는 3단계 경계 상황입니다. 저희는 요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택시 기사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 저희가 스스로 잘 보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부탁 드립니다.

4월 기도 제목:

- 텐션 학교와 카자흐스탄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저희 두 부부가 피곤치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하진이와 다애가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착 상황

저희가 정착을 위해 준비했던 집이 저희가 알마티에 도착하기 1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을 다시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라서 자연스레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나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었던 점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집은 학교와 30KM 정도 떨어져 있어 향후에 학교 근처로 다시 집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의 경우 다애가 한국을 그리워하고 조금 힘들어 합니다. 이곳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차의 경우, 학교가 비포장 도로로 5분이상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고 눈이 많이 오기에 이에 맞도록 구입하려고 합니다. 적합한 차를 구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가장 큰 도전은 언어입니다.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마트를 가도 레이블을 읽을 수 없어, 물건을 사는 일도 큰 도전이 됩니다. 러시아어 습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